

지난 24일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제2차 100인 대중공사는 '월드카페'를 응용한 방식을 도입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으로 펼쳐졌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중공사 위원들은 각 주제별 토론에 참가해 평소 생각한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8가지 주제로 진행된 2차 대중공사 내용을 정리했다.

“절 요사채 활용, 놀이방 게임방 수유방부터 설치” “현실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문 전해줬으면”

“불교는 4포세대 위해 뭘 했나”

이제는 대불련 회장 브리핑 '눈길'

“지금까지 포교는 인원을 늘리기 위한 ‘양적’ 포교, 방향을 생각하기도 전에 ‘방법을 강구’하는 포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포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지난 24일 본격적인 대중공사에 앞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학생 등 20대 청년들의 현실을 소개한 뒤 이에 걸 맞는 포교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회장은 100인 대중공사 위원 51명과 대불련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대 청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젊은이간의 인식 차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대응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20대 청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중공사 위원들은 취업 65%, 진로 19%를 손꼽았지만 대불련 학생들은 취업 36%와 진로 35%라고 답해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이제는 대불련 회장은 “취업과 경쟁, 갈등의 현실속에서도 20대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 대인관계 등을 포기하는 4포세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행복과 참나찾기, 공존 등을 추구하고 싶어한다”며 “이를 위해 불교계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울러 청년불자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해 대중공사 위원들은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38%, 불교이미지 개선 19%, 교육 분야 개발 13% 등을 선택한데 반해, 대불련 학생들은 불교이미지 개선이 53%로 제일 높았으며 재정적 지원, 청년들과 소통의 장 마련, 불교문화적 콘텐츠 활용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들은 미래세대가 필요하고, 불교계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힐링콘텐츠 활용’을 손꼽았다. 힐링콘텐츠 경험자 3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힐링콘텐츠 필요성’에 대해 74%가 필요하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힐링강연 만족도’에 대해서는 73%가 만족한다고 답해 힐링콘텐츠를 새로운 청년포교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더불어 운영회 조계종 포교원 차장은 미래세대의 환경과 흐름, 청소년들의 의식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청소년들은 상담의 대상으로 친구와 동료(46.2%)를 가장 많이 찾고 있으며 성직자와 청소년 전문 상담가 등 전문가집단에 대한 상담은 가장 낮은 1.4%에 불과한 만큼 불교계가 청소년들의 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난장토론 현장

“1983년 내가 수일포교당 주지로 들어가서 유치원을 설립하려다 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대신 요사채 건물에 ‘연꽃어린이집’을 만들었다. 당시 인등비를 받아 교사급여를 지급했던 기억이 있다.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요사채를 활용해서 어린이포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신도들이 봉사차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줘도 좋을 것이다.”

어린이포교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절에 가면 재미없어, 맨날 혼만 나...’라는 난장에 동참한 총무원장 자승님은 30여 년 전 어린이포교 시절을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난장의 방장격인 총무원장 지현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어린이 놀이방, 사랑방, 지대방 문화가 사찰에 넉넉하게 마련돼야 한다”면서 “청량사에는 ‘유아 수유방’까지 만들어 절에 온 아기엄마들이 수유를 하고 아이들을 재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의 눈높이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다함께 ‘끼리끼리 설날’을 합창할 때는 총무원장 스님도 함께 노래했다.

어린이포교 핵심은 사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어린이포교의 성공 모델로 알려진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은 “우리 은사 스님은 1970년대부터 연예인을 절에 초대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해줬다”며 연예인을 활용한 어린이포교도 강조했다. 절의 입장 성문스님도 “재미가 있어야 아이들이 절에 온다”며 “아이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구니 무구스님은 아이들 포교에 꼭 불교적인 프로그램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했다. 아이들 대상으로 중국어와 영어 등 외국어 강좌를 열었더니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좋아한다는 사례도 밝혔다. 지현스님은 “한 아이가 성장해서 직장인이 되어 스스로 범당 불전함에 돈 1만원을 보시하는 불자가 되려면, 스님들이 20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가없는 지원을 꾸준히 하면서 사람으로 지켜봐줄 때 비로소 어린이포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교부장 송묵스님 역시 어린이포교

◇ ‘2차 대중공사’ 8개 난장 주제

- 절에 가면 재미없어, 맨날 혼만 나... 애들이 바글바글한 절! 왜일까
- 중년병을 스님들은 아십니까
- 불교, 미래를 위해 이것만은 버리자
-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
- 김일병, 왜 법당 가니?
- 내가 포교원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내가 15학년 새내기라면
- 4포세대를 위한 희망의 꽃단지

대가없이 꾸준히 지원하고 보다 재미있는 방편찾아야 미래세대들이 사찰찾을 것

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1년에 3000만원 정도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교사와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훈 전 포교사단장은 “6명의 손자들이 할머니보다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게임할 수 있는 핸드폰을 주기 때문”이라며 “사찰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포교와 군불교 발전을 모색하는 다섯 번째 주제 ‘김일병, 왜 법당가니’ 군포교에 앞장서 온 스님과 포교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1사찰 1부대(또는 1군법당)결연맺기사업’을 통해 군포교에 적극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은 “기업체들이 책임경영(후원) 제처럼 전국 사찰이 413곳의 군법당과 결연을 맺어 군포교를 책임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군포교 사찰에 대한 종단과 교구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군포교 인력예



지난 24일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제2차 100인 대중공사 현장.

대한 지원 및 재교육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중병 출신에다가 현역 군인의 아버지인 이석식 조계종 총무원 총무차장은 “불광공사는 타종교에 비해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만큼 현실을 인정한 뒤 관심사별 템플스테이와 상담가능 강화, 군장병 포상휴가를 위한 군법당의 가정 부여제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가자 중 가장 최근에 군생활을 마친 김태현 대불련 대전지부장은 “많은 젊은이들이 사찰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고 사찰이 먼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대급 부대에도 자체 군중병을 두고 부대 내 빈 공간을 활용해 평일에도 상담 등 군법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불교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11교구본사 불교사 주지 종우스님은 “우리사회가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발전만 관심을 갖고 강조하고 있어 문제”라며 “불교가 정신문제를 다루어 할 종교인만큼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되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방편은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주제 ‘내가 포교원장이라면’ 난장에서 민학기 제2교구신도회장은 법회 등 정기적으로 사찰에 나오지 않는 불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신도등록업무를 사찰신도회로 이양

할 것을 제안했다. 민 회장은 “사찰에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불자를 양성화하고 300만명 이상 신도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사찰 신도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종단이 아닌 신도회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인 부가정 부여제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난장토론에선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중2병’에 대한 난장도 펼쳐졌다.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스님이 진행한 토론에서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김용숙 대표는 “중2병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런 성장과정이지만 어른들이 그것을 병으로 규정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종단에서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춘기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석사 주지 주경스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커가는 성장통이다. 일부가 그런 것이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큰 아픔 없이 지나간다”며 “병폐를 너무 부각시키고 과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가 15학년이라면?’을 주제로 한 토론방에서는 40대 재가불자부터 70대 스님까지 대학 신입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불교

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미래세대가 불교에게 바라는 점은 주로 취업난과 그로 인해 해소 방안 등으로 쏠려졌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고통을 불교 상담과 스님들의 정신적 지도를 통해 해소하는 법, 템플스테이 등 힐링프로그램 확대, 젊은 세대에 맞춘 단기 출가학교와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불교 입문을 위한 불서 목록 제작, 불교문화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가공해 전달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제는 대불련 회장은 “제 도반들에게 인기가 많은 법문의 공통점은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직접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현실에 맞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시키는 법문이라면 사찰에 가서 도반보다 스님을 먼저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교, 미래를 위해 이것만은 버리자’라는 세 번째 난장에선 권위주의와 불친절, 돈에 대한 집착, 스님들의 도구문화, 문중이기주의, 선거제도 등이 꼽혔다. 깨달음 중시 풍조를 버리자는 의견도 나왔고 조계종을 버리자는 다소 거친 반응도 개진됐다. 네 번째 난장 ‘100억이 생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주제토론에선 전문적인 청소년정책연구기관 설립, 5000여명 포교사단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전용법당 건립, 미혼모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별취재팀=하정은 박인택 임태규 기자, 이시영 충남지사장 이경민 수습기자, 사진 신재호 기자

해인총림 방장은 산중화합의 전통을 바탕으로 추대되어야 합니다

- 해인총림 방장 추대에 즈음한 긴급호소문 -

지난 2월 19일(음 1월 1일)을 지나오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을미년(乙未年)이 밝았습니다. 불자와 국민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해 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커 오래 전부터 화합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운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불자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계종과 해인총림의 대중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인총림(海印叢林)은 전임 방장(方丈) 도림법전(道林法傳) 대중사님의 원적(圓寂) 이후 새로운 방장스님을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산중의 공의를 모아 큰 어른을 추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해인총림 안에서는 대중의 염원과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중 최고 어른을 모시기 위해서 대중들이 화합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보다 갈등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총림 내 스님들을 향해 도를 넘어서 비난과 음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해인총림 방장은 산중화합을 바탕으로 3월 7일 산중총회에서 추대되어야 합니다.

해인총림은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수 없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총림 내 여러 비구·비구니 선원에서는 대중들이 섬 없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울림에서도 존각을 닦으며 공부에 공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9대 방장으로 조계종 원로의원 학산대원 대중사님의 추천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용성 대종사, 고암 대종사로 이어지는 법통을 부촉 받으셨습니다. 활발발한 기상으로 수행정진하신 분으로 뜻하신바 있어 공주에 학림사를 창건, 오랫동안 승속을 불문한 많은 수행자를 제접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성철, 해암, 법전 중징예하들께서 지켜 왔던 선종의 진각에 스님의 활발발한 기상으로 후학을 제접해 주실 선지식으로 출몰하시다고 뜻을 모았습시다. 근현대 들어서만 봐도 고암 큰스님, 자운 큰스님, 지월 큰스님, 성철 큰스님, 일타 큰스님, 해암 큰스님, 법전 큰스님, 지관 큰스님 등 기라성 같은 선지식(善知識)들이 나타나 한국불교를 이끌어 주신 곳이 바로 이곳 해인총림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해인총림에서 선거가 아닌 산중총회의 합의추대로 방장스님을 모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이 자주 만나고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화합하여 함께 대소사를 논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해인총림에서는 무엇보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계종과 해인총림 대중 여러분!

해인총림의 여법한 방장 추대를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경책을 부탁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해인총림은 물론 조계종 전체에도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불자와 국민여러분, 그리고 조계종과 해인총림 대중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인총림이 명성에 맞는 도량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해인총림 방장스님을 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각스님은 이미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방장스님이 추대 되시면 총림 선원장 소임을 내려놓고 고불암과 도림사의 불사, 그리고 자신의 출가원력을 되돌아보며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음을 다시 한 번 대중스님들에게 확인합니다. 해인총림 방장스님은 3월 7일 산중총회에서 전대중이 모여서 여법하게 추대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2559(2015)년 2월 23일

제9대 해인총림방장후보 학산대원 대중사 추천위원회 공동추천위원장 세민·종진·원웅 합장